르네 반 바우든베르흐 교수(René van Woudenberg)

과학주의를 넘어 상식의 세계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철학과 교수이며
'아브라함 카이퍼 센터'(Abraham Kuyper Center for Science and Religion) 소장으로 있는
르네 반 바우든베르흐 교수(René van Woudenberg)가 지난 해 11월 한국을 방문하여
한동대, 고신대, 백석대, 서강대 등에서 강의를 했다.
아래 대담은 네덜란드 유학 시절 그와 가깝게 지냈던 강영안 교수가 맡아 주었다.

강영안(이하 강) : **최근에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르네 반 바우든베르흐(이하 René): 가장 중요한 일은 '과학주의'(scientism)에 관한 연구입니다. 과학주의는 우리가 과학적 방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을 아는 것만이 진정한 앎이라고 주장합니다. 종교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과학주의 반대편에 서서 과학주의가 직면한 내적 문제를 지적하고 유신론적 방법의 합리성, 특히 기독교 신앙의 합리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간 지속적으로 이 작업을 해 왔습니다. 두 번째는 과학주의와 관련해서 우연의 문제를 자세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등급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빠르다느니, 느리다니, 또는 어떤 것은 좀 더 참에 가깝다느니, 참과는 거리가 멀다는지,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깁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토마스 리드(Thomas Reid)와 그의 철학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최근 리드와 관련해서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문제에 관한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강 : **과학주의에 대한 연구는 템플턴 재단 지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ené : 네, 템플턴 재단으로부터 거액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네 가지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의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벤자민 리벳(Benjamin Libet) 등 몇 사람들이 실험을 통해 자유의지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의식적인 의지가 우리의 행동을 추동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들은 우리가 결정할 것을 인지하기도 전에 우리 뇌가 이미 결정을 내린다고 결론내리고 싶어 합니다. 자유의지는 곧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들의 실험 결과가 무엇이며 논변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증거도 많고 우리 자신이 무

엇을 결정하고 행동할 때 자유롭다는 경험을 하는데 이런 경험은 적합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보고 대신 뇌 연구의 적합성만을 인정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증거를 채택할 때 균형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과학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마이클 루즈(Michael Ruse)나 에드워드 윌슨(Edward Wilson) 같은 진화론을 따르는 철학자나 생물학자들, 그리고 심리학자들은 도덕성은 환상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무엇을 전제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과학적 탐구 이전에 과학주의가 이들의 연구에 이미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진화 심리학자들의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주장이 도덕 실재론을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유(reasons)에 대한 몇 가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온 것은 우리가 만나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 바로 이 장소에 온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에 의심을 품는 심리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에 어떤 이유를 부여하든지간에 거기에는 항상 노출된 설명만 있을 뿐, 실제는 아무런 이유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이에 대한 실증적 증거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증적 증거들을 자세히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명확한 증거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증거들이 모호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이유는 없다고 말합니다만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이미 과학주의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에 관한 인지심리학적인 연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 사람들은 종교적인 믿음을 인지심리학적으로 모두 설명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시하는 예들이 종교적 믿음의 참됨에 반대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 : **다시 요약하자면 과학주의와 관련된 연구는 네 문제 그룹으로 나눌 수 있군요. 첫 번째는 자유의지, 두 번째는 도덕성, 세 번째는 이유, 네 번째는 종교적 신념에 대한 인지심리학적 설명.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과학주의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탐구를 하시는군요. 이른바 '신경신학'(neurotheology)도 다룹니까?**

René : 네, '신경신학' 문제도 우리의 연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뇌와 종교적 믿음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자들이 우리 연구팀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의 전체적인 틀은 '과학주의'의 이념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이념과 사상이 어디에서 출발했고, 어떤 긍정적인 논의가 있었으며, 그 속에 내재한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과학적인 연구도 수반됩니다.

강 : **네 가지 주제는 모두 인간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믿는 것을 모두 이른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가 곧 과학주의이지요. 그렇다면 현재 하고 있는 연구는 어떤 의미에서 과학주의에 매몰된 인간을 성경적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다시 회복하자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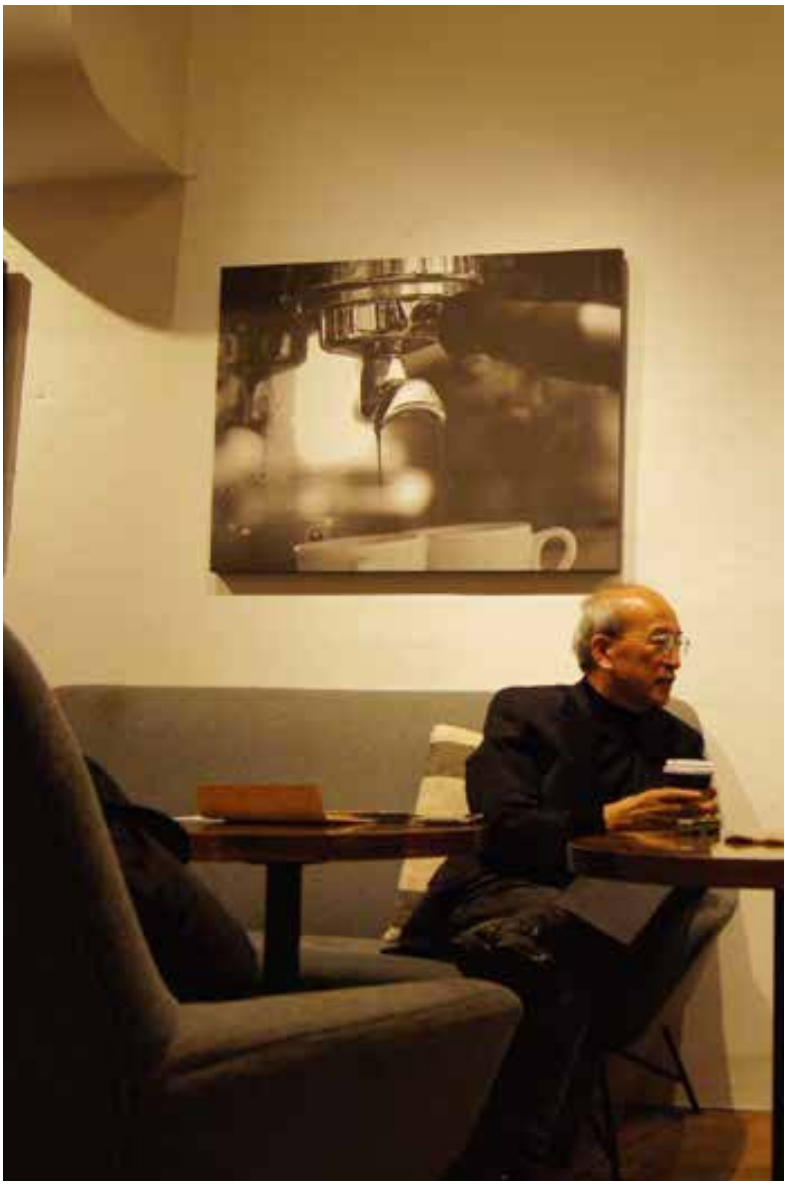
René :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네덜란드에서는 종교적인 영향을 받은 철학자를 그다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학과 상식(common sense)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를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도덕성은 환상이 아니라 실재이며, 우리는 누구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하고 책임을 집니다. 과학주의는 이러한 상식적인 생각들을 거부합니다.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매우 급진적인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우리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도덕적 비난이나 법률 행위도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비상식적입니다. 과학적 체계에 대한 오래된 질문은 '과학이 과연 인간과 세계에 대해 연구하고 조망할 수 있는 유일한 체계인가, 아니면 다른 체계도 수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매우 칸트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적이기도 하구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과학주의가 대단히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주의는 결국 과학조차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동시에 한계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 : **방금 말한 '상식'으로 돌아가 보지요. '상식'(common sense)은 한나 아렌트가 말하듯이 같은 공동체에 사는 타인과 함께 공통으로 공유하는 생각, 태도, 지식입니다. 만일 공동체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상식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 자유롭고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있고 어떤 것을 믿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식이 과학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면, 인간이 공유하는 상식보다 과학을 더 믿을만한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오직 과학만이 유일한 지식이고 유일한 설명 방식이라고 믿게 되면 우리는 쉽게 '과학주의'에 빠집니다. 그렇게 되면 과학주의가 하나의 새로운 '상식'으로 자리잡게 되겠지요. 물론 이것은 인간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좋은 생각, 좋은 상식이라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과학주의'에 근거해서 책임을 거부하고 법제도를 없애버린다면 아마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처벌을 할 수 없게 되겠지요. 이것이 가져오는 결과는 아마 엄청날 것입니다.**

René : 그렇겠지요. 매우 파괴적일 것입니다.

강 : **그렇다면 과학주의는 결코 상식이 될 수 없고, 상식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주의가 마치 하나의 상식처럼 되고 있는 현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René : 상식이란 개념은 그리 정교하게 정의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상식인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동의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환상이 행동의 이유라고 말하는 심리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조건이 갖춰져야 하고 정확한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과학 실험을 하고 있다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근거조차도 환상이라고 주장한다면 받아들이겠습니까? 만일 행동의 이유가 환상이라는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과학적 실험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계획하고, 실험을 설정하고, 이유에 따라 행동하고, 지침에 따라 적합한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이 네 가지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유에 따라 행동합니다. 과학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과학에서는 일관성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식도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의 범주 또한 우리의 사고방식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계 전역에서 진실성이 없는 과학 스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일관성이나 상식, 진실성을 배제해 버리면 과학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도덕성이 환상이라고 한다면 과학계는 사기꾼 집단이 될 것입니다.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도덕적으로 좋은 행동과 나쁜 행동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과학 안에서는 도덕적 규칙을 지키고 이유와 근거를 중시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에게 자유 의지가 있고, 도덕 규칙을 지킬 수 있고, 행동을 할 때는 이유가 있다는 전제아래 과학 연구도 가능합니다. 이것들은 일종의 상식입니다.



강 : **과학적인 활동이란 무엇일까요? 과학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René : : 저는 진리를 발견하는 활동이 과학이라 생각합니다. 진리 발견이 과학의 궁극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해 가는 길 위에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진술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학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 교수와 교사들이 가져야 태도는 일종의 '잠정성'에 대한 의식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는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배양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의 목적이 진리를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는 데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과학을 하기 위해서는 탐구심과 더불어 겸손, 주의, 신중함, 한계 등의 '지적 덕목'(epistemic virtue)을 제대로 배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과학을 통해 안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과학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분들, 특히 그 가운데 과학 기자들도 이 점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 **그런데 지금하고 있는 작업이 네덜란드 사회에 가진 의미가 무엇일까요? 과학주의는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온 세계로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네덜란드에서, 100년 전에 비해 엄청나게 세속화된 네덜란드 사회에서 가지는 의의가 무엇일까요?**

René : 우리는 책과 기사, 인터뷰 등을 통해 과학이 대단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신봉하지는 말아야 할 이유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연구나 이성을 통해 형성된 믿음 외에도 다른 자원을 통한 지식이나 믿음도 많다는 사실을 알리고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자 애씁니다. 때로는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하지요. 한 번은 암스테르담 대학의 어떤 심리학자와 함께 라디오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내가 두통을 앓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학적 조사를 통해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심리학자는 이렇게 비상식적인 이야기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다고 하더군요. 다른 예를 들었어요. "나는 내 뼈가 부러지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 심리학자가 대답하더군요. "내 친구는 부러진 뼈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다리가 부러져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심리학자는 과학주의에 온전히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연구 저널을 통해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편으로는 과학주의 바탕에 있는 사상을 들추어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말이 되는 대안을 제시하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좀 더 쉬운 말로 대중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동료들 가운데는 우리가 하는 일은 옳은 일이지만 그리 애써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주의가 우리 시대의 이데올로기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대중적인 심리학 등을 통해서 전파되는 과학주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철학적으로 보여주어야 하지요.

강: **그 일이 카이퍼 센터의 주된 업무이고 기독교 학자이자 기독교 철학자로서 주로 하시는 일이군요.**

René : 네. 현재 20여 명이 참여하여, 앞에서 얘기한 네 주제를 중심으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쪽에서는 테렌스 쿠네오(Terrance Cuneo)와 라스 샤퍼 란다우(Russ Shafer-Landau)라는 두 도덕 철학자가 합류해 있습니다. 이들은『진화와 도덕성(Evolution and Morality)』이란 책을 공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빌름 반 오뜬(Willem van Otten)도 함께 참여합니다. 이 사람은 늦은 나이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인데 소설가 겸 에세이 작가로 동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하는 주제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문학작품으로 써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수 학문적 연구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좀 더 많은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책들을 출판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언론사에서 주는 상을 받은 책도 있습니다. 릭 뻬일스(Rik Peels)가 쓴『신을 증명하다(God bewijzen)』라는 책인데 일반 출판사에서 출판했고, 나오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4쇄까지 찍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연구가 대중적인 인정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 : **언론과 대중에게 인정받고 있군요. 그렇다면 네덜란드 교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특히 베일스의 책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René : 좋은 질문입니다. 교회로부터 사실 어떤 반응도 없습니다. 특히 신학자들은 거의 주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프로젝트에 탁월한 신학자 한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만일 진화론이 옳다면 기독교 교리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과학주의와 과학의 문제에 무관심한 이유를 저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시(詩)와 기차 시간표가 다르듯이 성경과 과학은 전혀 다르다고 말이지요. 서로 다른 언어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강 : **신학자들은 과학을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인다는 말이지요. 진리의 한 종류로, 혹은 진리에 가까운 것으로 받아들여 놓고 과학과 타협하는 신학을 하는 것이지요.**

René : 그것은 마치 과학이 무엇을 원하는지 궁금해 하지도 않고 친구가 되어서 자신들에게 아무 해만 끼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게는 오히려 이것이 신학을 오히려 비합리적인 활동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책과 기사, 인터뷰 등을 통해서 과학이 대단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신봉하지는 말아야 할 이유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연구나 이성을 통해 형성된 믿음 외에도 다른 자원을 통한 지식이나 믿음도 많다는 사실을 알리고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자 애씁니다. 때로는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하지요.

강 : **그러면 신학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신학도 개념과 주장, 이론을 다루고 있고 지적 체계와 관여하는 활동인데요.**

René : 나도 궁금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성경 텍스트의 언어적 연구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 본문, 희랍어 본문에서 이것저것을 찾는 일 말입니다. 그런 일들은 학문적으로는 존중받을 만하지요. 하지만 우리 시대의 이데올로기, 우리 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아요. 역사신학자들은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 교회사의 세세한 부분을 다루지만 역사학자로 그러할 뿐 우리가 당면한 문제와 관련시켜 보지는 않아요.

강 : **신학자나 철학자나 과학자들은 모두 동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지적 작업에 참여하든 시대와 문화에 대항하든, 함께 하든 시대와 문화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네덜란드 신학이 그렇게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가요?**

René : 물론 헤이스베르트 반 드 브링크(Gijsbert van de Brink)나 꼐이스 반 드 꼬이(Cornelis van de Kooi) 같은 예외적 인물도 있지요. 그러나 주류 신학자들은 자신들의 일을 할 뿐 교회를 시대와 문화 속에 함께 있는 유기체적인 기관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우리가 언급한 수많은 주제들이 얼마나 시급한가를 신학자들이 의식하고 토론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강 : **얘기를 들으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신학적 태도의 기원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계몽의 문화일까요? 계몽주의가 하나의 지배적 문화가 된 뒤로 신학자들은 사회 속에서 공적 역할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에 대한 좁은 시각으로 교회에 한정된 활동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러다보니 그들이 속한 사회의 대중에게 다가가기보다는 교인들이 들을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언어만을 사용합니다.**

René : 학계의 많은 신학자들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신학 활동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성경 언어와 교회 역사 연구에는 몰두하지만 기독교가 믿는 교리나 교의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개념적인 작업을 포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신학자들이 하는 조직 신학이나 교의학은 마치 '진리'와 무관한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신학자들에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참인가, 예컨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명제가 참인가, 라고 물으면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게 참과 거짓과 무슨 관계있냐는 듯이 말이지요. 어떻게 그런 질문이 가능하는가 하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봅니다.

강 : **이미 사실과 가치의 분리가 전제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닐까요? 참과 거짓은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입니다. 가치는 유용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자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가치의 문제이기보다는 무엇보다 사실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참과 거짓과 무관할 수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신앙으로 고백할 때, 그 고백은 단지 사실에 대한 고백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됩니다. 나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실에 대한 고백이 곧 가치로 전환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들며, 따라서 여기서 사실과 가치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René : 그렇습니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독교 신앙은 공적 공간에서 할 얘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문화 속에서 문제되는 것을 우리는 공적으로 논의하고 토론해야 합니다.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며 공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은혜와 용서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문화는 더욱 빈곤해지고 메마를 것입니다.

강 : **네덜란드 교회에 회복의 조짐이 보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추락하는 추세입니까?**

René : 아니, 조금씩 좋은 신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나 성도들의 숫자는 하향세이기는 하지만, 교회 내의 영적인 흐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 영적 세계에 관심을 보이며 매일 기도하는 생활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시니 우리는 교회에 관해서 비관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고신대와 한동대, 그리고 서강대에서 좋았던 점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와 학문의 관계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교회 문화가 이질적으로 되어 버린 네덜란드에서는 강한 어조로 말할 수 없었던 것을 여기 와서 제약 없이 말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한국에 와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 할 수 있었던 것도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강 : **네, 마지막 말씀을 한국 방문의 소감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영안 한국외국어대학교, 벨기에 루뱅 대학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칸트에 관한 논문으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네덜란드 레이든 국립대학교와 계명대학교를 거쳐, 현재 서강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강교수의 철학이야기』, 『우리에게 철학은 무엇인가』, 『인간의 얼굴을 가진 지식』, 『타인의 얼굴』, 『칸트의 형이상학과 표상적 사유』, 『강영안 교수의 십계명강의』, 『신을 모르는 시대의 하나님』 등이 있다.